

이 유리상자에는 프랑스 혁명의 한 가운데 있었으며 역사에 의해 희생당한 한사람의 혈액이 비밀리에 채집되어 영구히 보존되어 있다.

1792년 1월 프랑스의 국왕 루이16세가 국가에 대한 음모죄로 처형당한 후 1792년 9월 22일 국민공회(國民公會, Convention Nationale)가 소집되어 자코뱅당(Jacobins) 과 지롱드당(Girondins)의 대립이 첨예하게 되었을 때 자코뱅당의 과격부류인 산악파(山岳派, Montagnards)의 중요인물인 마라(Jean Paul Marat, 1743~1793)가 암살되었다. 지롱드당의 열성단원이며 완고한 왕정주의자의 딸인 샤를 드 코르데(Charles de Corde)는 지롱드당의 음모와 계획을 알고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마라의 집으로 들어 갔으며 마라가 이야기를 들으려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는 순간 코르데는 숨겨온 단도로 그의 가슴을 찔러 살해했다. 그 후 마라의 시신은 장례 절차에 따라 입관되었으나 입관 직전 자코뱅당의 열성분자이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느 한 외과 의사에 의해 시신에서 혈액이 수집되었다. 이는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마라의 동료였던 당통(Georges Jacques Danton, 1759~1794)의 입회하에 진행되었다고 전해진다. 이때 당통은 혼란스런 프랑스의 시국과 마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그의 피가 담긴 용기에 장미 한송이를 헌정하였다. 그러나 당통은 그 다음 해인 1794년 기요틴에서 목이 잘려 처형당했다. 이러한 혈액 수집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으며 익명의 외과의사가 어떤 이유로 마라의 혈액을 수집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. 혈액이 담긴 용기는 그 동안 칼 바도스의 한 병원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그 후 세계 2차 대전에 소실되었다. 그 후 1996년 스코틀랜드의 사업가인 존 스티어링(John D. Stirling)씨가 혈액 용기를 세상에 공개하였으며 마라의 혈액임을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를 의뢰하였다. 검사 결과 마라의 혈액임을 입증되었고 이 과정에서 예전의 금속의 혈액 용기는 유리상자로 대체 되었다. 이 유리상자는 현재 존 스티어링씨에 의해 설립된 개인 박물관(Stirling House Museum)에 보관되어 있다.

courtesy: Stirling House Museum, Kirkwall, Scotland